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 취약계층에 생필품 ‘동행꾸러미’ 전달

2024. 5. 30.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28일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쿠팡 와우 동행꾸러미' 나눔 활동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가정의 달’ 맞아 오류왕길동 독거노인 60가구에 생필품과 카네이션 전달
- CFS,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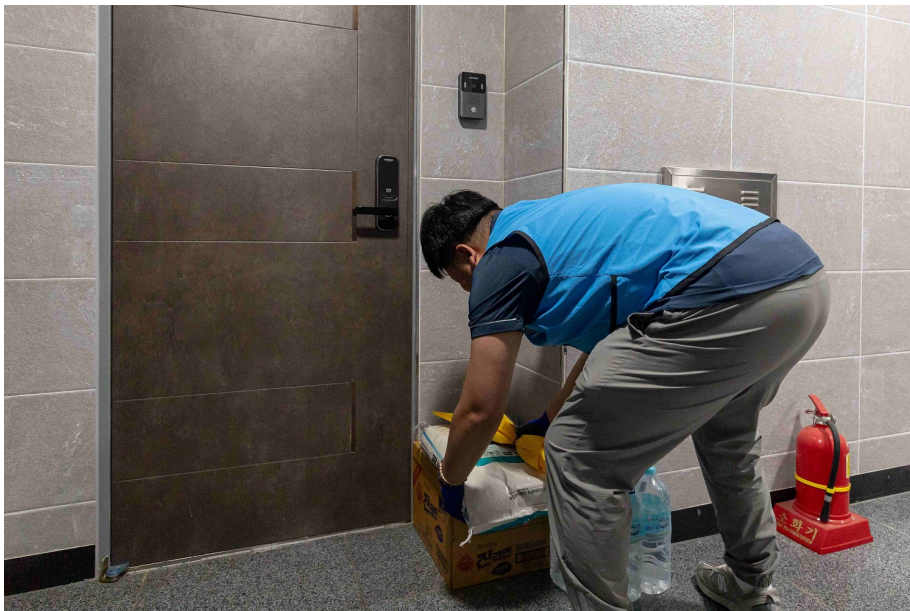
2024. 05. 30.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펼쳤다.

CFS는 지난 28일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60가구에 ‘쿠팡 와우 동행꾸러미’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정종철 CFS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했다.

‘쿠팡 와우 동행꾸러미’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의 버팀목이 되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CFS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왼쪽)와 직원들이 28일 생필품과 카네이션을 들고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 일대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가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원이 28일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 일대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생필품과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다.

CFS는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번 나눔을 진행했다. CFS 임직원들은 쌀, 라면, 생수, 카네이션 등 동행꾸러미를 들고 독거노인의 거주지를 찾아 집집마다 다니며 직접 전달했다.

오류왕길동의 조 모 씨는 “쿠팡 사람들이 우리집에 선물을 한 보따리 놓고 갔다”며 “오랜만에 카네이션 꽃을 보니 기분이 참 좋고 고맙다”고 전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쿠팡 인천센터 직원 백두산 씨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배송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며 “이번 나눔이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독거노인분들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가 28일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 일대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생필품과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CFS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임직원 성금 기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에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산에 낙엽송 3천 그루를 심는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